

연중 제33주일

제 1 독서 : 잠언 31, 10-13.  
19-20, 30-31.  
제 2 독서 : 1데살 5, 1-6  
복 음 : 마태 25, 14-30

# 순정이

“네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였으니 이제 내가 큰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마태 25, 21).

## 강론

### “평신도의 날을 맞이하여”

김치덕 / 평협회장

날이 밝아오면서 매스컴에서 또 뭉서리치는 뉴스가 계속 터져나온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러려니 하고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일까?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선포, 유해환경, 교통질서, 환경오염 등. 최근에 우리 눈앞에 많이 쓰이는 단어는 모두 동원되어 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한다고 한다. 어떻게 되어서 이 사회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을까? 교회가 많이 세워질수록 범죄가 줄어야 되고 교도소의 수도 적어져야 된다고 한다. 이제 어느 특정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전에 반성하여 보자. 항상 하루의 생활을 반성하고 또 내일을 설계하는 것은 좋은 일이며 자기 발전을 가져온다고 한다.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으로 지은 죄는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많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미사중에 ‘내 탓이오’ 라고 가슴을 치며 자기 잘못을 뉘우친다. 한국 평협에서는 신뢰회복의 일환으로 ‘내 탓이오’ 운동을 전신자에게 권하고 있다. 나아가 외국에 살고 있는 교포 사회에서도 호응도가 크다고 한다. 이 좋은 운동을 마다할 신자가 어디 있겠는가. 이제 우리 평신도들이 걸어온 발자취를 조용히 돌아보자. 진지한 성찰은 깊은 각성을 낳는다. 그래서 반성이 없는 생활은 살 가치가 없다고도 한다. 우리 교구는 주교님 착좌식 이후 활기를 되찾았다고 본다. 교구 운영 전반에 걸쳐 평신도들의 전문적이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시키고 교구의 제반 사항도 공개하여 보다 민주적으로 교구 행정을 펴고 있다. 이에 우리 평신도들이 좀더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야 할 것이며 임명된 평신도는 더욱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여야 하겠다. 인간이 각자의 사명을 자각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기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평신도들은 현세 질서 쇄신을 위한 사명감을 갖고 복음의 빛과 교회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세상에 심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또한 오늘의 교회는 평신도들이 부정과 탄압, 한 개인이나 한 정당의 전제와 불관용에 항거하여 청렴결백과 지혜를 다하여 투쟁하며 성실과 공경, 사랑과 정치적 용감으로써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헌신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평신도는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을 이웃에게 전해야 할 시대적 요청이며 소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 소리

### “그리스도인이 못한 일”

“일부 복음주의자들은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은 사회정의를 세우고 민족수난을 해결하는 데 있다. 지금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수난은 민족분단이다. 기독교도들이 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조선 기독교도 연맹 서기장 고기준 목사가 한 말이다. 주체사상의 교조적 논리에 복무하는 선진용 교회의 말이라고 선입견을 내세우지 않고 듣는다면 좋겠다. 사실 우리 사회의 가장 작은 고통과 뒤떨림까지도 모두가 남북분단의 악으로부터 빚어져 나오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 일인데, 그리스도교인들이 할 일이 통일 말고 무엇이 있을까.

합평·영광 보궐선거에서는 지역감정 타파를 위해 영남 출신 후보자를 당선시켰고, 안면도 주민들은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 반대 시위를 큰 희생을 치르고 해냈다. 그리스도인들이 못한 일을 그곳 사람들이 해낸 최근의 두 가지 ‘통일’ 과업이다.

교회는 오늘 무엇을 하고 있을까? 진정으로 복음적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만 할까?

물질적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가장 먼저 인간을 타락시키는 것이 편리와 안일을 위해서 양심을 죽이는 자기 분열 현상이다. 아담과 하와가 그 최초의 경우였다.

오늘 가톨릭 교회가 누리는 상당 수준의 풍요와 자기 도취가 좋은 결과에도 활용될 수 있으려면, 내적인 정비 작업이 절실하다는 것부터 깨쳐야 할 것이다.

사회가 슬슬 교회를 백안시하기 시작하는 기미가 보일 때, 교회는 무엇하러 이 세상에서 있는지 곰곰히 생각해볼 때가 된다. 북한을 복음화한다고 북한을 흡수통일하는 식으로 덤비는 어리석음은 말아야지... [정]

### 순정이 산책



평신도는 교회의 주인!

# “교황청 정기 방문을 마치고”

이 병 호 주교/전주교구장

형제 자매 여러분, 먼저, 교황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안부와 인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사제들과 수도자들, 신학생들과 교리교사들, 예비자들과 그리스도의 진리를 찾는 모든 이들, 가정과 본당 공동체들에게 나의 격려와 인사를 전해주시시오.” 교황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께 인사하시고, 고린토 전서 16장 23-24절을 인용하여,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은총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을 모두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축복 속에 시작한 교황청 정기 방문 길과, 이 기회를 이용한 유럽 각 지역 내의 교구 소속 신부님들과 수도자들 그리고 신학생 방문은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큰 보람을 주며 아무 불편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교회법 제400조에 의해서 전세계의 모든 교구장들은 5년마다 자기 교구의 제반 상태에 관해 교황님께 보고하고, 그 기회에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로의 묘소를 참배하며 교황님을 찾아뵙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은 마침 우리 한국 주교단이 그 일을 하게 되어 있는 해이기 때문에, 병환으로 부득이 불참하신 원주교구의 지학순 주교님을 제외한 국내의 모든 교구장 주교님들과 함께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실제로 교황님 알현에 소요된 시일은 10월 15-16일) 교황청을 공식 방문한 것입니다.

본인으로서의 교구장으로서의 책임을 지기 시작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교황청에서의 방문 절차 하나 하나가 더욱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10월 15일 아침 6시에 약 30명 정도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 교황님의 개인 경당에서 한국의 모든 주교님들이 그분과 함께 드린 미사는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미사중의 성가 등 실질적인 도움을 위해서 현지 유학중인 한국의 수도자들과 신학생들 약 10명이 그 미사에 초대되었는데, 그 가운데에는 성체회 소속 수녀님 한 분도 계셨습니다. 미사 시작 전에 한국 교회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려하여 우리 민족을 위해서 봉헌하시겠다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을 뿐, 따로 강론을 하시지는 않았는데, 미사는 약 5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만큼 교황님께서 그 한 미사를 마지막으로 봉헌하시기라도 하시는 듯이 온 정성을 다 바쳐서 드리시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큰 의미가 있는 대목에서마다 깊은 침묵 속에 머물러 계시곤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긴 시간이 흐른 것이었는데, 미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한 주교님께서도 같은 감동을 느끼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교황님은 확실히 신비가이신 것 같습니다.” 때로는 군소리마저 들으실 정도로 잦은 해외 여행, 공산 세계에 태풍처럼 불고 있는 자유화의

바람을 일으킨 장본인 중의 한 분으로 정평이 나 있을 만큼 현실 문제에 깊이 개입하시는 교황님의 외적 활약상 뒤에는 이만한 내적 생활이 뒷바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날 낮에는 교황님께서 우리 주교단을 점심 식사에 초대 해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유별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바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식사의 분위기는 화기에 넘쳤고, 같은 기간에 열리고 있었던 세계 주교대의원 회의 때문에 평소보다도 더 바쁜 신임 일정에도 불구하고 넉넉한 시간을 할애하여 중형무진의 대화 주제를 스쳐가며 자유로운 대화가 오갔습니다.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의 전일정에 빠짐없이 참석하시면서도, 다른 주교님들이 차를 드시며 잠시 휴식을 취하시는 동안에 살짝 빠져나오시어 개인 면담을 하실 만큼 교황님께서 그 직책에 따른 일들을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참으로 그 안에서 재미를 느끼시고 즐기시며 수행하시는 듯한 인상을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엄청난 양의 일을 처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그러면서도 건강을 유지하시는 것은 더욱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황님을 제일 가까이서 모시는 한 주교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분의 건강이 최근에 와서 더욱 좋아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개인 면담은 각 주교님들에게 약 15분씩이 할애되었는데, 지도를 펴놓으시고 해당 교구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부터 확인하신 다음, 제일 큰 관심사에 대해서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본인으로서의 한국 교회의 신학교 증가에 따른 교수 요원 및 영성 지도자 양성의 중요성에 관해서 주로 말씀드렸습니다. 면담 끝에는 교구 내의 모든 신부님들과 수도자들, 신학생들, 사도회원들, 교리교사들, 교우 여러분들께 인사를 전해달라고 부탁하시고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개인 면담이 모두 끝났을 때, 교황님의 서재에서 주교단 전체의 알현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 주교단을 대표하는 의장 주교님의 전체적 보고와 인사 말씀이 있었고, 이어서 교황님께서 한국 주교단과 교회에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관해서는 이미 가톨릭 신문 등 간행물을 통해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번의 기회를 이용하여 유럽 각 지역에 계신 교구 소속 신부님들과 수도자들 그리고 신학생을 찾아보고, 특별히 신부님들과 신학생들의 유학 문제와 관련하여 현지 주교님들과 협의한 일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결실을 내었습니다. 교포사목과 유학을 위해서 파견되신 분들이 모두 열심히 하고 계시어서 반가웠습니다. 또 독일 중서부 지역의 교회(마인쯔에 거주하시는 강인찬 신부님 관할)와 스위스 교향 자매들의 신앙생활이 대단히 적극적이고 신부님을 중심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의 여행은 대단히 의미있는 것이었으며 가는 곳마다 협의하고 처리해야 할 일들이 예상외로 많은 것을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여행기간 동안 기도해주신 신부님들과 수녀님들, 신학생들 그리고 교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철저한 개인지도  
**관 미래속셈학원**  
정 회 연 (다미아노)  
이 경 애 (로 마니)  
북부시장 앞  
☎ 75-2534

■인테리어선반 ■철재가구  
■수 족 관 ■보 조 키  
**성원 인테리어**  
☎ (0652) 78-1941  
육지구 북부시장 내  
서 원 식 (아교보)  
※ 전화주세요, 즉시배달 설치해 드립니다

웨딩 드레스 전문점  
**신 부 의 집**  
최 영 자 (헬레나)  
☎ 88-6951  
동서관동로 신탁은행 앞

**샘물**  
  
좋은 生水는 직접 시음을  
해보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주 85-4205. 군산 64-4481  
이리 52-5595

잡 관!

“천주교 신자 선생님들의 큰 모임이 생긴다”

조금만 마음의 평정을 잃고 세상을 보노라면 마치 ‘악이 판치는 세상’ ‘이리떼가 우글거리는 세상’처럼 보인다. 또 이들과 한패가 되지 않고서는 살아 남을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도 비참하게 느껴진다. 이러한 세상에서도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이 진정 가능할 것인지 회의를 느끼기도 한다. 모든 인간적 꿈-출세, 진급, 풍요로운 삶, 인정받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한 말이다. 특히 삶의 정도(正道)와 진실만을 가르쳐야 하는 교역자(敎役者), 더욱이 신자교사들의 번민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 괴뢰의 총수 김일성의 본명은?’ 하는 문제와 이의 정답은 ‘김영주’라는 응답에 동그라미를 쳐야 했던 아픔을 간직하고 살아야 했다. 이러한 삶을 그저 운명이나 못된 세상 탓으로 돌려버리기엔 자신의 양심이 쉽게 허락하진 않을 것이다. ‘이건 아닌데,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쳐서는 안되는데...’ 하는 갈등을 해소하지 못해 겪어야 하는 고민을 언제까지 외면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떳떳한 교육자로, 더 나아가 하느님과 인간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가톨릭 신자’ 교육자로 양심의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은 과연 없을까? 이러한 공통된 아픔과 희망을 함께 나누기 위한 모임이 힘있게 출범한다. ‘천주교 전주교구 중등 교육자회’라 칭하는 이 모임은 이러한 문제들을 폭넓게 수용하며 또한 의롭게 살아야 하는 신자교사로서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오는 11월 24일(토) 오후2시에 있을 창립 총회에 전주교구 내 전(前)·현직 신자 중등교사 및 관련 기관 종사자는 물론 관심있는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교 구 소 식

※ **축! 천주교 전주교구 중등 교육자회 창립 총회**: 11월24일(토) 오후2시-6시30분 가톨릭센터 3층 대상-전주·완주 지역 중등교육자, 교육기관에 재직했거나 재직중인 신자.

1. 사무감사: 20일(화) 임실, 효자우전, 나바위. 21일(수) 주현동, 팔마, 상광. 22일(목) 삼례, 오룡동, 월명동, 조촌동.
  2. 축! 건진: 11월24일(토) 숲정이 성당 오후8시.
  3. 혼인강좌: 11월25일 오전9시30분 가톨릭센터 회비-5,000원.
  4. 중·고 성탄 연수: 11월24~25일 명덕 적십자 수련원.
  5. 교리교사 수첩, 중·고 학생 수첩 신청: 미신청 본당은 빠른 시일내에 교육국에 신청바람.
  6. 전복일보 천주교 고령관(7면) ‘성당의 종소리’ 안내: 19일(월)-공의회란 무엇인가? (정인섭 선생), 21일(수)-어느 할머니의 인연(최용준 신부), 24일(토)-연육이란? (홍보국).
  7. 각 본당 사목회장단 및 교구단위 단체장 연수회: 12월1일(토) 15시-2일 13시 천호 피정의 집 회비-2만원.
  8. 환경문제 교육용 비디오 판매: ‘하느님 보시니 참 좋았다’ 53분, 15,000원 (02)461-3897.
  9. 마리아수도회 성소모임: 11월25일 오전10시 본원(02)334-8547.
  10. 한국외방선교회 성소모임: 11월25일 오후2시 광주 명상의 집 (02)923-1946.
- ※ **축! 영명**: 23일(성클레멘스) 윤양호 신부님 축하드립니다.

※ **엄마들을 위한 영화 ‘로메로’ 상영**: 11월19일(월) 오후3시 전주교구청 별관 1층 소강당. 회비-1,000원.

요심이 (902) 김병오



고 사제 김종택(요셉) 영결 미사에 수고하신 주교님 그리고 신부님과 수도자 형제 자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카 김용태 (베네딕도) 신부 김선태 (사도요한) 신부 유족 가족 일동

**1991학년도 성심유치원 원아모집 요강**  
 1. 대상: 만 4세-6세 건강한 어린이  
 2. 인원: 만 4세 40명, 만 5세 15명, 만 6세 40명 (총 95명) 신학순 모집  
 3. 원서 교부: 12월1일~5일까지  
 4. 원서 접수: 12월6일~7일까지

홍부의 정성으로 만들었습니다.  
  
**늘부보쌈**  
 오 재 천 (안드레아) 정 불 교 (미카엘라) 효자동 우진아파트 앞  
 ☎ 223-0297 ~ 8

양재·한복·휴패션  
**노라노학원**  
 수시모집, 원장직접 개인지도  
 원장 김형문 (대리안드레아)  
 동부시장앞·민정당시원  
 ☎ 86-2715

결혼양복·Y 사쓰  
**썸킹 - 테크**  
 안 설 태 (대리아노) 활 인 자 (우슬라)  
 전주시 고사동 1가 95 경전라사 한성어과 중간  
 ☎ 84-2804

☎ 형식승인 전 3-7-3825 발명특허원 3523호  
**Bio Ceramic 원적외선요·사우나**  
 원적외선 방사로 여성의 생리까지 맑게 해주는 제품. 확실한 혈액순환으로 신경통, 생리통, 관절염, 피로회복, 숙면, 고혈압, 지혈압, 중풍 및 암 예방  
**Bio Ceramic 다보청지특별주문생산**  
 전화문의 환영 ☎ 73-0773 신빅토리노·장미카엘라 **한국다보**

# ☐ 북전주지구 본당소식 ☐

**\* 중앙** 사제관 77-1713 수녀원 5-1714 주임신부 황 인 규  
사무실 77-1711 유치원 77-1712 보좌신부 한 병 현  
사목회장 황 의 옥

**\* 11월은 위령성월입니다. 앞서가신 영혼들을 위해 성성껏 두손을 모읍시다.** 1. 오늘은 평신도의 날입니다: 모든 미사중에 2차 헌금 있습니다. 2. 합동연도: 오늘 9시미사 후 많은 참여 바랍니다. 3. 쉬는 교우방문: 20일(화)~23(금), 구역장·반장님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4. 10월 영세자 첫교백성사: 24(토) 저녁미사 후 첫모임-22(목) 오후7시30분 한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부활반 예비자 모집: 11월중 계속 모집하오니 정성껏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모임: · 계속형제회 심의회-오늘 공식미사 후 · 하늘의 문 꾸리아-오늘 오후2시 · 대건회-21(수), 오후7시 · 성심부녀회-23(금), 금요미사 후 · 계속형제회-다음주일, 오후2시. 7. 모니키회 어머니성가대 1일피점: 24일 광주명상의 집 오전8시 출발. 8. 성령세미나 성향리에 마쳤습니다. 애써주시 전주교구 성령봉사 회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9. 1991년도 사업계획서 제출: 각분과위원장 및 모든 신심단체장은 199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11월25일까지 사무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암** FAX 251-3850 사제관 251-1912 주임신부 왕 수 해  
사무실 251-1911 보좌신부 251-1913 보좌신부 이 사 정  
사목회장 정 주 환

1. 오늘은 평신도주일: 2차헌금 있음.  
2. 꾸리아: 오늘 오후2시-천상의 모후(교육관), 성마리아(만남의 장소).  
3. 연도대회: 25일 오후2시(단체별).  
4. 유아세례: 24일 저녁미사(대상자 사무실신청).  
5. 병자방문: 30일(대상자 사무실신청).  
6. 금주 전례: 해설-김덕수 독서① 박대일 ② 윤순자 봉헌-이강욱 부부 복사-김병수, 김인선.  
7. 차주 전례: 해설-진홍원 독서① 강병주 ② 박춘자 봉헌-김창선 부부 복사-이대용, 정희권  
8. 미사 안내: 매과의 모후Pr. 차주-자비의 모후Pr.  
□ 지난해 봉헌금: 869,750원 □ 교무금: 718,000원

**\* 덕진** 사제관 72-3389 주임신부 성 태 수  
사무실 252-2182 보좌신부 오 성 기  
수·유 72-1222 사목회장 김 낙 현

**\* 오늘은 평신도의 날입니다-각 미사에 2차헌금이 있습니다.**  
1. 대건회: 공식미사 후.  
2. 성모회: 공식미사 후.  
3. 가정방문: 20일-덕진9반, 21일-덕진23반, 22일-덕진25반·팔복4반.  
4. 신입하신 교무금은 잘 내고 계십니까?  
5. 금주 전례: 해설-정석의 복사·독서-오영록, 오실 기도-덕진11반.  
차주 전례: 해설-박기자 복사·독서-신정철, 차침동 기도-덕진12반.  
6. 금주분당침소: 은총의 어머니Pr-24일 오후2시.  
□ 지난해 봉헌금: 1,143,280원 □ 교무금: 944,000원

**\* 동산동** 사제관 74-4614 주임신부 소 순 형  
사무실 76-1289 사목회장 박 영 철  
수녀원 77-4212

**\*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2차헌금이 있습니다.**  
1. 모임: 에스텔화-24일(토) 12시. 애행회·자모회-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2. 구역형제모임: 23일(금) 오후7시30분. 3. 구역미사: 금주 20일-동산5구역. 4. 영화상영: 21일(수) "교백의 비밀"-미사(후7시). 5. 혼인조당자 혼인예식: 11월11일-12월9일까지 사무실에 신청(세례증명서, 호적등본). 6. 추계구역방문: 20일-원반월, 21일-화전, 22일-동산, 23일-동산2, 24일-동산3. 7. 전례안내: 금주 해설-김현식 독서① 진창수 ② 신문자. 차주 해설-이석규 독서① 이의준 ② 한명자. 8. 성당침소: 금주-셋별모후. 차주-바다의 빌. 9. 금년도 교무금 납부에 많은 협조 바랍니다.  
□ 지난해 봉헌금: 380,130원 □ 교무금: 406,000원  
□ 수요헌금: 42,720원

**\* 서신동** 수녀원 74-9262 사제관 74-9261 주임신부 박 성 팔  
사무실 74-9260 사목회장 박 병 열

1. 예비자 교리시간: 학생반-매주 토요일 저녁미사 후, 일요반-매주 일요일 공식미사 후, 목요반-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  
2. 성서 공부: 매주 화요일 저녁미사 후.  
3. 성가 연습: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  
4. 본당 조경: 오늘 점심자 오전9시부터(삼, 팽이 지참).  
5. 교무금 납부에 정성을 다합니다.  
6. 사용하신 물건을 항상 제자리에 정리 정돈 합니다.

7. 금주 침소: 4구 차주-5구 및 어은골.  
8. 금주 모임: 공식미사 후-꾸리아 차주-방주회.  
9. 금주 전례: 해설-이민순 독서① 김학수 ② 김순덕 차주 전례: 해설-이민순 독서① 이일상 ② 임명희  
□ 지난해 봉헌금: 382,760원 □ 교무금: 910,000원

**\* 송천동** 사제관 74-8873 사무실 74-1004 주임신부 김 태 동  
수녀원 4-1142 사목회장 김 인 철

1. 치명자의 모후 꾸리아: 공식미사 후.  
2. 오늘은 평신도 주일: 평신도 사도직을 위한 2차헌금.  
3. 가정방문: 20일-10가구역 21일-10나구역 22일-11구역 23일-12구역. 4. 연말 세금정산: 사무실에 신청바람.  
5. 헌옷수집: 성인용(하상바오로회).  
6. 주.소.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임대등록: 사무실에 접수바람.  
7. 금주 분당침소: 3구역 24일 오전10시.  
8. 금주 전례: 해설-김한수 독서·봉헌-소태영, 최정림 기도-조동환, 김동희  
차주 전례: 해설-이건창 독서·봉헌-문두봉, 최전순 기도-소태영, 최정림  
□ 지난해 봉헌금: 576,330원 □ 교무금: 782,000원

**\* 숲정이** 사제관 76-1320 사무실 252-7366 주임신부 김 동 준  
수녀원 252-9567 사목회장 김 경 주

1. 오늘: 평신도의 날(2차헌금 실시).  
2. 오늘모임: 꾸리아, 청년회, 학생전교리-오후4~5시.  
3. 구역장 단합대회: 19일.  
4. 성인 견진교리: 20~22일 오후8시.  
5. 견진성사: 24일(토) 오후8시.  
6. 중·고 교리교사 성탄연수: 24~25일(명덕연수원).  
7. 다음주일: 그리스도왕대축일 모임-요한회.  
8. 모악산등반: 다음주일 12시반에 구이중학교 집결, 도시락 각자 지참. \* 주최-푸른솔.  
9. 금주·차주 전례: 진복2동3구.  
□ 지난해 봉헌금: 667,300원 □ 교무금: 965,500원

**\* 인후동** 사제관 86-8876 수녀원 86-8875 주임신부 서 용 복  
사무실 86-5022 사목회장 정 수 일

1.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2차헌금 있음)  
2. 안나회: 18일 공식미사 후.  
3. 레지오단원 피점: 20일 오전9시30분~오후4시.  
4. 자모회: 22일 어머니 미사 후.  
5. 판공성사 성경읽기: 로마서 전부.  
6. 유아세례: 25일 오후7시 6시30분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 어머니 성가대 성가연습 매주 금요일 오전10시 많은 참석 바랍니다.  
8. 주일학교 교리에 관심을 갖고 많이 보내주세요.  
9. 연말 정산용 영수증이 필요하신분은(공무원, 회사원)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주민등록 번호 필요).  
10. 축! 결혼: 18일 12시 신랑-박태승(미카엘) 신부-김봉훈.  
□ 지난해 봉헌금: 873,050원 협조에 감사합니다.

**\* 호성동** 사제관 78-0075 사무실 78-1140 주임신부 정 양 현  
수녀원 78-0094 사목회장 박 대 규

**\* 오늘은 평신도의 날입니다. 평신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차헌금이 있습니다.** 1. 호성회, 안나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가리파스회: 금주 목요일(11월22일) 어머니 미사 후. 3. 꾸리아: 다음주 공식미사 후.  
4. 본당 구역내에 있는 상가는 주소록을 작성하고자 하오니, 각구역장님이나 사무실에 신청하세요. -11월말까지.  
5. 교무금 미납하신 분들은 완납바랍니다.  
6. 미사 안내: 금주-셋별의 모후Pr. 차주-애덕의 모후pr.  
\* 미사안내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미사시간 30분전에 오셔서 어깨띠를 착용하시고, 솜뭉치 배부 및 좌석안내, 예비신자 인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요.  
□ 지난해 봉헌금: 600,650원 □ 교무금: 359,000원